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

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12절

Tag:

1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2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의 같고 큰 우렛소리와의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3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5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6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8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9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

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를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14:1-12)

하나님은 이 세계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온 인류는 죄 가운데 빠져서 온갖 죄로 말미암아 다투고 서로를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선동하고, 기준을 바꾸어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그른 것을 옳다한다.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마귀나 귀신이나 환생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를 선택하는 자들로 가득하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양심이나 도덕은 쉽게 내팽개치며 오직 악한 자들의 무리에서 자기가 왕따 당할까봐 두려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미워 하신다.

이런 모습은 세상 어디를 가나 공통이다. 그러면 선량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가르치셨다.

흠 잡힐 일을 하면 악한 사람은 재빨리 알아차리고 그 사람의 약점을 노리고 괴롭힌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로울 것을 당부 하셨다.

과거 우리나라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고, 유교 율법주의에 찌들어 살면서 사회 구조적으로 전혀 소망이 없는 나라였다.

세계 열강은 우리나라를 개화 시키려고 노력했으나, 우리나라의 율법주의 자들은 극렬하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현실적인 감각이 우리보다 더 나아서 빨리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근대화에 앞장섰다.

중국은 아편에 깊이 물들어서 나라 전체가 깡그리 무너졌고, 결국에는 공산당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사상 유래 없는 고난의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다.

세 나라 모두 기독교는 전파되었다. 일본은 기독교가 많이 확산 되었으나, 천황을 중심으로 뭉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였다. 오직 소수의 찐 크리스천들만 지금도 살아남았고, 그나마 신신학에 물든 교회들이 많다.

중국에도 선교는 활발했으나, 후에 공산당은 삼자교회만을 인정하였고, 그들은 공산주의를 비난하지 않는다.

유독 한국만 민중 깊숙이 신앙이 파고들었고, 초대 대통령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서 더욱 선교에 힘을 얻었다. 6.25 사변을 통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은 한국은 그 후로도 미국 기독교인들로부터 많은 원조를 받았으며, 2대 대통령 박정희의 국정 철학과 기독교 정신이 맞물려 세계 유일의 산업화를 일구어냈다.

그러나 북한에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정부가 들어섰다. 지금도 북한은 세계 제1의 기독교 탄압국, 인권 탄압국이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숙명 앞에 서게 되었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넘어서 주체사상으로 나라를 온통 망쳐 놓았는데, 놀랍게도 남한에는 주체사상으로 뭉친 자들이 풍요로운 남한의 정권을 넘보는 세력이 되었고, 이들은 북한과 손을 잡고 거짓말과 권모술수로 남한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다.

그야말로 남한은 선과 악의 싸움판이 되고 말았다. 사사건건 물고 뜯고 서로 아귀다툼을 벌인지 근 35년이 넘어간다. 이제는 거의 강 대 강이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북한은 이렇게까지 싸우지 않는다. 오직 남한만 허구한 날 싸운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를 골라내신다. 왜 싸우는지 그 이유를 아는 자들을 도우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들에게 승리를 안겨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치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기록한 말씀이다. (그렇다고 오늘의 한국을 위해서 계시록 14장이 기록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상황은 인류의 역사에 끊임없이 재현되고 있다.)

1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양 : 예수님

시온 산 : 하나님의 도성, 교회

십사만 사천 : 성도

(그들의 이마 : 어린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됨.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알 수 있다는 뜻. 이 표식은 결코 바코드나, 베리칩이 아니다. 가수 심수봉은 영안이 열려서 크리스찬을 알아볼 수 있는데,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머리 위에 하얀 링이 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도 이마 위에 마귀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서, 그가 마귀의 소유이며, 마귀의 명령대로 행동한다는 뜻.)

2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많은 물 소리 ; 폭포소리, 바닷가 소리

-큰 우렛소리 ; 천둥소리 => 한마디로 이루 말 할 수 없는 큰 소리

-거문고 소리 ; 악기 소리-현악기 소리인데 그 숫자가 어마 어마한 소리

-그런데 이 소리는 바로 찬양소리였다.

3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

에서 속량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
더라

- 보좌 앞에서 부르는 노랫소리;찬양소리
-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의 찬양소리; 죄인이었으나 그 죄를 씻김 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 자들의 찬양 소리.
- 십사만 사천 밖에는 배울 자가 없다; 오직 구원 받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찬양.

4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들; 계시록에서의 여자는 세속적으로 유혹하는 마귀 음녀를 뜻함. 즉, 마귀에게 그 영혼이 더럽혀진 자들을 뜻함.
- 어린양이;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사랑한다는 뜻.
- 처음 익은 열매;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 첫 번째 난 양은 하나님의 것, 즉 장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음.
- 첫째 건 둘째건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란, 예수님의 보혈로 속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표현함.

5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 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십계명. 모르고 한 말은 반드시 사과하고 해명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은 거짓말을 전략적으로 사용한다. 일단 자기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한다. 옛날부터 그랬다.
- 계시록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을 선민으로, 그 외의 악한들을 마귀에게 속한 자로 나눈다.

6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 다른 천사가 모든 민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유일하게 계시록에 복음이 언급된 구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끌어 모으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시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멸망 당할 운명을 깨닫고,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7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천사가 외치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라!

-이제 때가 되어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으니, 복음을 받아 들이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8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둘째 천사가 선포한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큰 성 바벨론; 세속도시.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마귀에게 자신의 영혼을 파는 자들이 사는 도시를 큰 성 바벨론이라 부른다.

-서울이 큰 성 바벨론일 수 있는데, 다행히 서울은 하나님의 도성이기도 하다. 두 그룹이 섞여 사는데, 바벨론이라는 칭호는 세속도시에 속한 자들의 도성이란 뜻이다.

-하나님의 도성이 아닌,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예언의 말씀이다.

9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9절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누가 멸망받을 자들이냐?

-짐승(마귀를 뜻함)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표가 666이라고 말들이 많은데, 당시의 우상은 네로 황제라는 뜻이다.

-그가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와 같이 당시 마귀에게, 다시 말해서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이미 그 이마에 표를 받은 셈이다.

-성도들도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짐승에게 속한 자들은 마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새겨진다는 뜻이다.

-손은 악한 행실을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손에만 이름이 있다는 것은 아마도 자신 스스로는 마귀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전히 손으로는 마귀의 짓을 하는 자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호떡은 뒤집어도 호떡이다.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손에는 마귀의 이름이 씌여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마나 손이나 마귀짓은 멸망의 증거가 확실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10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들은 고난을 받고, 멸망 받는다.

-계시록에는 성도들이 마귀에게 당하는 고난은 짧고, 우상숭배자들이 받는 고난은 영원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짧은 고난이 두렵다고 영원한 고난을 자청하지 말라는 뜻이다.

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를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14:1-12)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경건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영적 전쟁터.

-성도들이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한다.

-이것이 진리이고, 팩트이다. 세상을 보는 제대로 된 눈을 가져야 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이단을 물리치고, 세속적 가치관과 이념 가치관에 휘둘리지 말라. 세속을 하나라도 허용하면 사람의 영혼은 병들게 마련이고, 휘둘리게 마련이다.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대한민국의 사명이 크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한국 성도의 사명이 크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사명이 크다.

-자신의 이마에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세속도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아멘.

14 이는 혹 내 골육을 이무쫘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롬11:14)

26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롬16:26)

6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14:6)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